

다산포럼

조영철



사회여론조사를 해보면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분배보다 성장 정책을 더 지지하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편이다. 또 경제활동 지역과 주거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심이 많다.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사회적 비중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도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비농림부문 자영업자(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29%로 미국 6.6%, 영국 11.7%, 프랑스 6.8%, 독일 10%, 스웨덴 8.8%, 일본 12.3%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자영업 비율 선진국보다 높아

농림부문을 포함한 전산업 자영업자 비율은 2005년 한국이 33.6%로 OECD국가들 중 그리스(36.4%), 멕시코(35.7%), 이탈리아(27%), 포르투갈(25.8%) 정도가 우리 나라처럼 높으며 서구 선진국들은 훨씬 낮다. 우리나라의 비농림부문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 잠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비율이 1990년 27.9%에서 2004년 29%로 1.1% 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드

구조조정 역설, 위기의 자영업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최근 높아진 것은 이례적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조사를 보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에 직업만족도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조사에서는 인적 특성, 산업, 직업 등의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영업자의 직업 만족도가 임금근로자들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자금 제약이 완화되는 호경기 때 자영업이 증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불황 때 오히려 자영업자

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학력 자영업자일수록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전문서비스직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생산성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 집중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고 생산성도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자영업의 문제점은 사업기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창업인 기회형 창업 비율이 낮은 반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비자발적으로 창업하는 생계형 창업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2006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제도 임의가입이 허용되었지만, 임의가입 제도의 한계로 실제로 가입하는 경우는 드물며, 가입해도 교육·전직훈련 혜택만 있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들보다 빈곤과 소득불안정 문제가 더 심각하고 직장이동 등에 대한 전직훈련 등 사회안전망 서비스도 가장 필요한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 개선 필요

따라서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이 저생산성부문에서 고생산성부문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구조조정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임금근로자 위주로 짜인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도로 재편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원리에만 의존해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오히려 효율성과 양극화를 모두 악화시키는 시장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구조조정 역설' 현상을 완화하는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 산업예산분석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대량실업자가 발생하자 준비가 부족한 경제 자영업자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의 효율성은 개선되었는지 모르지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인적, 물적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부문으로 몰려들어 국민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구조조정 역설' 현상이 발생했다.

더욱이 생계형 자영업 창업 증가는 내수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자영업자들 간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자영업자 소득을 떨어뜨려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시설

새 회장 체제 광주상의 개혁으로 거듭나야

광주상공회의소 새 회장에 이승기 상능건설(주)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이로써 오랜 기간 회장 공백상태로 파행을 겪어왔던 광주상의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광주상의는 그동안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갈등과 내분을 겪으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난해 3월 19대 회장선거가 부정 시비에 휘말려 법정다툼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전임회장이 임기의 절반만 채우고 중도하차했다. 뒤이은 보궐선거 역시 합의추대 문제로 이견을 노출하며 4개월여 동안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이 신입 회장의 임기는 19대 후반기 1년2개월 여밖에 안 된다. 하지만, 이 회장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우선 회장 선거 과정에서 사분오열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광주상의를 개혁하는 일도 새 회장의 시급한 과제다. 광주상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나 지역기업 지

원 활동 등 본연의 임무는 소홀한 채 회장과 일부 상공위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상의가 지나치게 회장 1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위원도 회장 측 인사로 채워지고 여기서 소외된 회원은 상의를 의면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회장 선거 때마다 내분을 겪은 것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됐다.

이 신입 회장은 광주상의의 운영부터 개혁해야 한다. 의사 결정에 지역 상공인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회장과 몇몇 측근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무국의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상임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우선 회장 선거 과정에서 사분오열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승기 회장의 개혁의 열의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경제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 당선자 '화합 속 변화' 실천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정치와 경제, 정부조직 개편, 대북 관계, 교육 문제 등에 대해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 당선인의 청사진에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연해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은 '화합 속 변화'다. 이 당선인은 정치, 경제, 공천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일관되게 '화합 속 변화'를 강조했다.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화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낮은 자세를 보였다. 그는 "이것이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스के줄도 없다.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운하에 대한 반대론이 적지 않은 현실에

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북 관계도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이 당선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남북한 정상) 임기중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사태 이후 경쟁력 남북관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제는 실천이다. 화합은 국민통합 및 사회통합이 전제돼야 한다. 집권 초기에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앞날이 밝을 수 없다. 이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민생과 서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당선인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다짐했다. 오만과 독선을 접고 국민의 여론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게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고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임수정



그녀는 중국 연변족이다. 일명 매매혼자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 시원한 눈매가 날카롭다. 목소리는 높고 깔깔하다. 키가 훤히하게 크고 걸음걸이도 씩씩하다. 임신 2개월인 그녀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결혼중매인과 남편, 남편의 가족들 뿐이다. 그녀는 남편이 일하러 나가있는 동안 집에서 칠순의 시아버지와 종일 함께 지낸다. 남편은 밤늦게 돌아온다. 그녀는 반가움에 피곤하다는 남편을 붙잡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늘어놓는다. 이런 불평 저런 불평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란 그녀는 논리정연하고 당당하게 말한다.

고 일도 하고 싶다. 돈 벌어 연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다. 그런데 남편은 그녀를 쾅개쳐두고 들어오지 않는다.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자신을 편하게 해주지 않아서 들어오기 싫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부부가 그런 말도 못하는가.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게다가 때리기까지 하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는 3만9천71건으로 전체 결혼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행자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72만2

급변하는 시대, 변화하지 않는 족속

왜 해주기로 약속한 혼수를 해주지 않느냐.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한다. 나는 시아버지하고만 살기로 하고 결혼했다. 왜 내게 시숙의 딸까지 키우라고 하느냐. 왜 시아버지는 화장실을 그렇게 더럽게 쓰느냐. 왜 시아버지는 당신의 월급을 내게 주지 않느냐. 왜 시누이는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 나는 일하고 싶다. 왜 여자는 일하면 안된다고 하느냐. 나는 돈을 벌어 연변의 친정아버지 약값도 보내고 싶고, 동생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일 못하게 하려면 당신이 번 돈을 달라. 나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집안 일도 한다. 그런데도 당신 월급을 시아버지가 틀어쥐고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하는 것도 안한다. 당신 월급도 안준다. 그러면 나는 못산다.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녀가 꿈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이다. 아이도 낳고 싶

친 686명으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억8천5백만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 이동을 한다고 한다. 이중 65~70%가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 경제적 이유에서 이동한다. 결혼이주도 경제적 요인이 크다. 그렇지만 여성의 이주가 단순히 빈곤 때문만은 아니라고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영 대표의 말한다.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젊은 여성들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온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확장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있는 시도인 것만은 분명하다. 바야흐로 다문화 시대다. 여성의 의식은 변화하고 있다. 당연해졌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예전과는 다르다. 시대가 변했다.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남편들이다. 폭력이라니. 부끄러운 일이다. <광주 여성전화 사무국장>

가파른 대학 등록금 인상, 올해는 동결 됐으면

매년 오르지만 하던 대학 등록금이 부산의 경남정보대학·부산정보대학에서 동결 방침을 밝혀 신년선 충격이 되고 있다.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큰 폭의 상승뿐만 아니라 명분마저 약했다. 물가상승률과 임금 인상이 불과 2~3%에 불과한데도 대학들은 등록금을 7~8%나 인상했다. 또 대학 재정을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 등록금은 일본·유럽국가들보다 비싸다. 경제력으로도 보면 훨씬 뒤쳐

진데도 말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휘고, 가세가 휘청인다. 대학들은 원가 절감과 경영의 합리화, 수익 사업 확충 등으로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올해는 우리 지역 대학들도 부산의 대학들처럼 등록금 동결이라는 희소식을 안겨줬으면 한다. <우윤숙·광주시 동구 서석동>



백색 동물, 축복 혹은 불행



예부터 우리 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부른다. 옛 사진들을 봐도 조선시대까지 우리 조상들은 흰색 옷을 입었다. 이는 염색술이 발달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 정서 속에 흰 것을 숭상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흰 동물이 나타나면 언론에서 길조라고 대서특필을 한다.

작년에 또 지역의 꽃사슴 무리에서 백록이 태어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통에 그 사슴이 스트레스에 못 이겨 죽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들려왔다. 우리 지역에서도 흰 너구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모든 털가죽 동물들은 백색의 알비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

물이든지 백색이 출현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야생에서 번식도 태되기 때문에 쉬이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첫째는 부모나 동류들에 의해 배척당하기 쉽고 다음은 천적의 눈에 쉽게 노출된다. 낙타 새끼는 태어나서 한 두 달 동안은 사진처럼 하얀 털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흑색 백낙타일까 하고 많은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솜털이 제 털로 바뀌면서 어느새 어미와 같은 털로 돌아와 버렸다. 새끼들이 어미와 다른 특이한 색을 갖는 경우는 내가 새끼이니 보호해 달라는 일종의 징표라고 한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전남도 기름 유출 피해 '사랑 나눔' 확산 필요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그 피해가 전남 해안까지 미치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환경 피해를 극복하고자 수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경험인데 미국 각 도시에서는 식당, 꽃집, 슈퍼마켓, 세탁소, 문구점, 제과점 등 업종별로 서로 연합해 사랑의 나눔운동을 하고 있었다. 동종 업종이 모여 매달 또는 매달 매출액의 1%씩 매년 전해주는 방식이었다. 하루 매출이 30

만원이면 3천원을 기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00구 꽃집 변형회, 00구 제과점 상가운영위원회 등에서 하는 사랑나눔 운동이다.

사랑 나눔 운동에 참여하는 가게에는 주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사랑 나눔의 가게' 호칭이라는 현판을 만들어 걸어주고, 고객들은 이런 현판이 걸려있는 가게를 더 많이 찾는다는 것이다.

작은 사랑이 큰 실천이 되는 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광주·전남에서도 사랑나눔 운동이 활성화 돼 서로 나누고 돕는 사회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연실·광주시 동구 신수1동

無等鼓

19세기 중반 미국의 가장 큰 부자는 J. P. 모건이었다. 역사상 최고의 금융 제국을 건설한 그는 당시 한창이었던 남북전쟁에도 돈을 내놓을 정도의 거부였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석유를 존 로컬러,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 주식과 철도의 제왕 제이 골드 등이 같은 시기에 모건과 함께 부를 일군 인물들이다. 당시 미국은 영국 등 유럽뿐 아니라

들은 대중들로부터 결국 '강도 귀족(Robber Baron)'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강도 귀족'은 12~13세기 독일에서 라인강을 막아놓고 통행세를 돈을 걷던 파렴치한 영주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표현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탐욕적인 이윤추구를 통해 지배자 반열에 오른 그들 대기업인을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쿠닐 바수 교

강도귀족



수는 사회공헌, 즉 사회적 책임경영도 하지 않고 이를 기업이미지 개선 홍보에 활용할 생각도 없는 기업을 현대적 의미의 '강도 귀족'이라고 재해석 했다.

지난해 말 태안 앞 바다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타르 덩어리나 사회적 제약 없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재산을 옥심껏 모을 수 있었다. 그들은 미국을 지배하는 신흥귀족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부러운 존재였을 뿐, 존경을 받지는 못했다. 시장의 질서가 채 마련되지 않은 당시, 재산이 쌓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악명을 얻었다. 그

/기현호 경제부장 kih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www.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0195)
편 집 부 2200-629	문 화사업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F A X 2200-55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6	여 령제작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제 육 팀 2200-627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